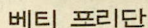


「노인운동가」 변신



소외된 老年層에 "自信感 갖고 살아라" 忠告

를 충실히 7년간 자 호정
을 맡았던 프리단은 83년

설사 그렇다고 해도 별로
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
것.

프리단은 『나이가 들수록
자신에 대해 새로운 확
신을 갖고 자신을 주장해
야 한다』고 강조한다.